

동반 경험 망 모형을 적용한 성서 히브리어의 신체 어휘 번역 방안 고찰*

정 병 철
(경북대학교)

<Abstract>

Jeong Byong-cheol. 2011. *Applying Accompanied Experience Network Model in Translation of Body Words of Biblical Hebrew. Korean Semantics, 36*. Biblical Hebrew is well known for her using abundant images and body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and role of body word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Bible from Hebrew to Korean. This study is based on Accompanied Experience Network Model, which has proven to be valid in explaining the usage of any linguistic units. This paper probes the usages of representative body words such as head, hand, led, eye, nose, mouth of Hebrew Bible, and suggests that their usages are caused by three mechanisms, that is as traditionally called metonymy, metaphor, and word comb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euro-science, metonymy is caused by association of synapses, and by Long Term Potentiation the extended meaning is registered as distinctive one in network. On the other hand, metaphor is realized by reconstructing the connections already established through repeated experiences, thus the metaphor expands the domain of usage, not the meaning itself. Most of the usages of body words made by metonymy can be translated word for word, because the human body is a common place where the similar active zones are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7-A00320).

provided. In the same vein, some of metaphor can be transferred literally, but some of them cause a crude word for word translation, for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 and culture leads to different structure of established connections. As a result, the body words of high frequency in hebrew bible turns out to be a embodied rosetta stone assisting u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ancient language and to translate it more exactly.

핵심어: 성서 히브리어(Biblical Hebrew), 번역(translation), 신체 어휘(body words), 동반 경험 망 모형(Accompanied Experience Network Model), 환유(metonymy), 은유(metaphor), 신경과학(neuro-science), 장기 증강(Long Term Potentiation), 의미 확장(extension of meaning), 복원(reconstruction), 직역(word for word translation).

1. 서론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는 단도직입적인 문체와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Gragg & Stone 2010).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분호가 한 단락에서는 “콧구멍이 빨개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배의 용골은 ‘등뼈’, 바다의 기슭은 ‘입술’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생생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신체 어휘들은 중요한 몫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히브리어 성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 어휘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서 히브리어에 사용된 신체 어휘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신체 어휘를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에는 한학자들이 중국어 성서를 먼저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원어 성서와 영어성서를 참고해 한글 성서에 수정을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 전체를 한국인이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허성갑 2009). 과연 그 옛날에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히브리어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을까?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은 오늘날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다. 예컨대, 창세기 37장 32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위해 ‘~ySiP; tn<toæK.(ketoneth passiyim)¹⁾’을 만들어주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겂옷’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ySiP;((passiyim)’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문맥을 통해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성서 히브리어는 원래 의미의 변개 없이 정확한 번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신체 어휘를 사용한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가령, ‘승낙했다’와 같은 추상적인 단어보다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신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도 정확하게 번역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구조와 기능, 경험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예를 들면 지쳤을 때 고개를 숙이고 힘이 생기면 고개를 드는 것과 같은) 등은 거의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경과학에 기초한 의미망 모형을 사용하여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신체 어휘를 설명하고, 번역상의 의미 변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성서 히브리어 예문은 WTT²⁾이며, 한국어 예문은 <개역 한글판³⁾>이다. 그리고 용례의 검색과 분석, 통계 등

-
- 1) 셈어족에 속하는 다른 문자들처럼 히브리어 문자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표기하고 읽는 것이 원칙이다.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오른손잡이에게는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위에서 아래로 표기를 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위에서 아래로 표기를 한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비롯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고대 이집트어 등은 [오른쪽→왼쪽]방식을 사용하며, 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 2) ‘Codex Leningradensis Hebrew Text’이며 ‘Leningrad Hebrew Old Testament’라 불리기도 한다. ‘Leningrad Hebrew Old Testament’는 1981-1982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만든 ‘Michigan-Claremont Hebrew text’를 토대로 제작되었는데, ‘Michigan-Claremont Hebrew text’는 ‘Leningrad Codex’를 충실하게 다시 제작해 만든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를 입력해 만든 것이다.
 - 3) 1961년에 출판되어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성서 번역본 중 하나이다. 정확한 제작 연도가 불분명한 그 이전의 한글 성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며, 영어개역성서(RV)에 기초한 중국어 성서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동수 2003: 17-19). 본문에서 KRV(Korean Revised Version)은 <개역 한글판>의 예문임을 표시한다.

을 위해 LLC에서 제작한 전용 소프트웨어 <Bibleworks 9>을 활용했다.

2. 신경과학에 기초한 의미망 모형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언어 단위의 의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의미망 모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다의적 구조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 실제성을 추구하는 의미망 모형을 발전시켜 왔는데, 의미망을 다루는 다양한 이론(Langacker 1987, Lakoff 1987, Tyler & Evans 2003)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선 연구(정병철 2009, 2010a, 2010b, 2011)에서 여러 번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동반 경험 망 모형(AENM: Accompanied Experience Network Model)의 특성과 분석 원리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금까지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론(Generative Lexicon)에 기대어 명사의 다의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강범모 1999, 배도용 2002, 차준경 2009 등)도 있었다. 하지만, 생성어휘론은 몇 가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인지적 접근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론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속성구조(Qualia Structure)’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서로 구분되며, 어휘는 문법 체계에 속한 하나의 모듈(module)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휘의 의미 구조가 분할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발상은 더 이상의 심층적인 설명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편리한 가정일 뿐이다. 이에 반해 인지언어학에서는 어휘의 의미가 세상 지식, 또는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모듈 같은 것은 상상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인공물 없이도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Pustejovsky(1995)가 관찰한 논리적 다의성 4)들이 인지언어학에서는 환유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인지적

4) 논리적 다의성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과정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동반 경험 망 모형은 언어의 의미를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의 수준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생성어휘론이나 다른 의미 망 모형들과 차별화된다. 이 모형은 장기 기억이 만들어질 때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Kandel(1979)의 생리학적 고찰에 직접적으로 기대고 있는데, 의미망 모형에서 장기 기억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의미망에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개별 의미⁵⁾가 신경회로의 수준에서는 장기 기억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andel(2006)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이라는 복잡한 생명체의 장기 기억이 발생하는 과정도 결국은 신경 단위의 시냅스 연결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군소(Aplysia)를 15년에 걸쳐 연구한 이유도 바다 달팽이의 가장 단순한 신경 구조가 인간의 복잡한 정신 활동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면, 군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의미망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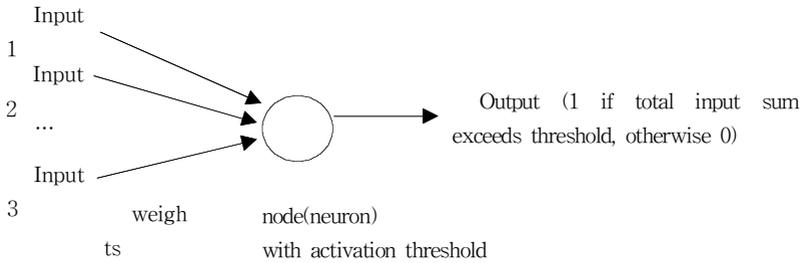
- ㉠ Count/Mass alternations: lamb, deer, rabbit, chicken
 - a. The *lamb* is running in the field.
 - b. John ate *lamb* for dinner.
- ㉡ Container/Content: bottle, glass, box
 - a. Mary broke the *bottle*.
 - b. The baby finished the *bottle*.
- ㉢ Figure/Ground: door, window, fireplace
 - a. The *window* is rotting.
 - b. Alex crawled through the *window*.
- ㉣ Product/Producer: newspaper, Honda.
 - a. The *newspaper* fired its editor.
 - b. John spilled coffee on the *newspaper*.

5) 개별의미란 맥락과 세상 지식에만 의존하여 즉석에서 발생하는 의미들과는 달리 장기 기억에서 인출될 수 있는 고착화된 의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희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에서 ‘들었다’가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맥락 정보와 세상 지식에 근거한 사고 과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의미가 활성화된 결과이므로 [순종하다]는 개별의미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정병철(2009) 참조.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아가미는 군소가 호흡할 때 쓰는 외부 기관으로, 체벽에 있는 구멍인 ‘외투강(mantle cavity)’ 속에 있으며 ‘외투선반(mantle shelf)’이라는 껍질로 덮여 있다. 군소의 호흡기관인 아가미는 평소에 이완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관을 건드려 군소를 놀라게 하면 아가미는 외투강 속으로 움츠러든다. 이것은 아마도 필수적이고 연약한 기관인 아가미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수관을 약하게 건드리는 자극을 반복해서 주면 군소는 그 자극에 습관화되어 움츠림 반사는 약화된다. 그러나 다시 약한 건드림이 꼬리에 가한 충격과 조합되면, 군소는 민감해져 약한 건드림만 있어도 아가미 움츠림 반사가 강화된다. Kandel(2006)에 의하면 학습이란 다양한 기초적인 형태의 시냅스 가소성을 조합하여 더 복잡한 형태의 시냅스 가소성을 만드는 일이며,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습의 반복이다. 시냅스의 차원에서 볼 때, 의미의 확장은 결국 활성화되는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동반 경험 망 모형은 언어 단위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것도 일종의 학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미망이 발생하는 과정을 시냅스의 연결로 설명한 것이다.

동반 경험 망 모형은 언어의 의미나 용법이 확장되는 과정에 시냅스의 연결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유나 은유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제공해준다. 먼저, 환유는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을 촉발시키는 작용을 하여, 흔히 말하는 의미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병철(2007)에서는 ‘매체(vehicle)’가 그에 동반되는 경험을 활성화하는 현상이 환유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환유가 발생할 수 있는 틀은 신경 단위의 수준에서 본다면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특정한 자극이 어떤 경험과 동반되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그 자극과 경험은 시냅스에 의해 연결되어 동시에 활성화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림 1> ANN의 formal neuron (Ahlsén 2006: 170)

동사 ‘보다’의 의미가 [과약하다], [처리하다], [언다], [기대하다], [돌보다], [준비하다], [추측하다] 등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기본의미가 지시하는 경험과 동반되는 경험이 장기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병철 (2009)에서 설명된 바 있다. 그리고 동반 경험에 의해 언어 단위의 의미가 확장되는 현상은 한국어의 동사와 조사, 부사에서도 확인되었다(정병철 2009, 2010a, 2010b, 2011). 우리가 신경과학에 맞춘 환유의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미의 확장을 발생시키는 가장 지배적인 메커니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눈’은 안구 중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안구나 눈썹, 눈꺼풀, 눈두덩, 혹은 시신경의 일부를 포함한 영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 ‘고락’은 [낙지의 배], [낙지의 뱃속에 들어 있는 검은 물], [낙지의 뱃속에 든 검은 물이 담긴 주머니] 등을 의미한다(임지룡·정병철 2009). 이와 같이 참조점이 인접 영역과 함께 활성화되는 현상은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결이 반복되어 장기증강될 경우 독립된 확장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 어떤 언어 단위이건 그 의미가 해석되고 확장되는 과정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환유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유는 언어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에도 개입한다. 오늘 날, 우리가 알고 있는 ‘bible’이란 단어는 라틴어 ‘biblia’와 그리스어 bibl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단어가 책을 의미하게 된 것은, 이집트인이 책과 두루마리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파피루스를 그리스에 수출한 곳이 바로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비블로스(Byb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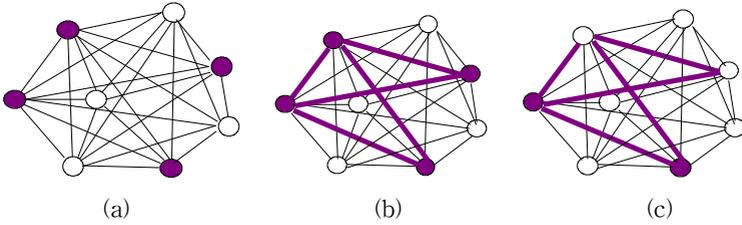
항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 단위들은 동반되는 경험을 토대로 의미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환유가 시냅스의 연결을 통해 의미의 활성화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은유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기억 심상(engram)’을 만들어내는 시냅스의 연결에 대한 Hebb(1949)의 학습 이론을 참고하여 은유가 신경회로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A) The general idea is an old one, that any two cells or systems of cells that are repeatedly active at the same time will tend to become ‘associated’, so that activity in one facilitates activity in the other. (Hebb 194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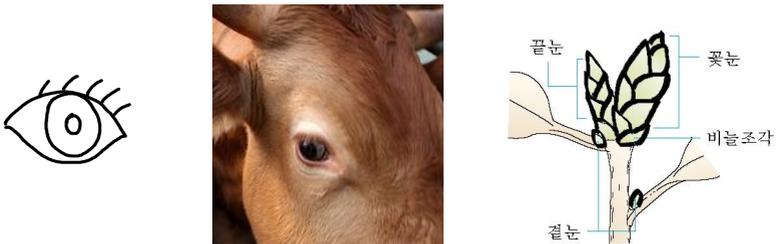
(B) When one cell repeatedly assists in firing another, the axon of the first cell develops synaptic knobs (or enlarges them if they already exist) in contact with the soma of the second cell. (Hebb 1949:63)

Hebb(1949)의 제안은 “함께 점화되는 신경들은 함께 엮이게 된다(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장기 기억의 세포 단위 기제로 보이는 ‘장기 증강(Long Term Potentiation)’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그림 2>는 Hebb의 제안을 간단한 시각적 모형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여덟 개의 가상적인 ‘피질신경세포(cortical neuron)’들은 처음에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가(<그림 2a>), 감각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일정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 때 같이 점화되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강화된다(<그림 2b>). 특정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연결은 강화되어 다른 자극에 대한 감별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때로는 자극이 원래의 모습과 일부 달라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처음에는 장기 증강에 의해 이미 생성되어 있던 신경세포의 연결 중 일부만이 활성화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체 연결이 활성화될 수 있다(<그림 2c>).



<그림 2>

장기 증강된 시냅스 연결의 일부가 전체를 활성화하는 이 과정은 은유가 만들어지거나 이해되는 과정에 개입된다. 가령, 우리의 장기 기억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눈’의 의미가 [인간의 눈]이라 해 보자. 황소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른 점도 있지만 형상과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눈’의 범주에 쉽게 포함되는데, 이런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어의 ‘눈’은 식물의 구조 중 눈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부분도 지시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황소의 눈보다는 원형과의 유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가 모든 언어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때, 원형적인 눈과 다른 대상에서 원형의 속성을 포착해내는 것이 은유의 목적인다고 한다면, 은유의 사용에는 <그림 2c>처럼 시냅스 연결의 일부로 전체를 복원하는 과정이 개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성은 본질적으로 유무성이 아닌 정도성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유사성이 약한 은유일수록 보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림 3>

장기 증강에 의해 형성된 시냅스 연결의 복원 현상은 익숙한 자극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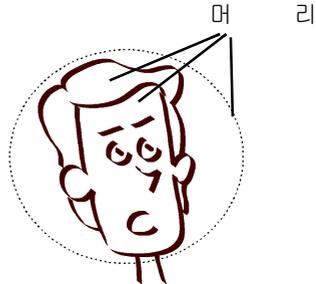
유사성에 기대어 새로운 자극을 개념화하는 인간의 일반적 성향을 잘 설명해준다. 이른바 ‘개념적 은유론(Conceptual Metaphor Theory)’는 은유가 인간의 개념화 과정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장에서 은유의 발생 과정을 신경세포의 연결이라는 생물학적인 층위에서 탐색해 보았다.

은유가 발생하는 과정의 본질은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이 아니라 이미 장기 증강이 이루어진 연결의 복원이다. 환유는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로 발생하지만, 은유는 기존의 연결이 복원되는 과정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유가 의미를 확장하는 기제라면 은유는 의미의 사용 영역을 확장하는 기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둘은 모두 용법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신체 어휘 대조의 실제

3.1. 머리 vaor

한국어의 ‘머리’와 히브리어 ‘vaor’는 얼굴의 윗부분이나 두부(頭部)에 있는 모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 위에 있는 신체 부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두개골 속에 들어 있는 뇌와 중추 신경 따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활성영역(active zone)’의 변동, 혹은 ‘환유(metonymy)’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언어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한국



<그림 4>

6)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머리를 자르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모발을 지시할 때 ‘head’가 ‘to shave one’s head(삭발하다)’

어와 히브리어의 예문은 각각 (1)과 (2)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하게도 현대 한국어에서 ‘머리’가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반면,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vaor’의 유사한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근방에 ‘머리’가 생각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⁷⁾

- (1) a. 공사 현장에서의 발과 사고로 머리에 쇠못이 박혔다.
- b. 머리를 깎고 나서도 계속 머리에 신경을 썼다.
- c. 머리와 전신의 비율이 1대 8인 신체를 8등신이라고 한다.
- d.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a. ~yI"r:p.a, varoÜ-1[; tv,Y"ww:
 An÷ymiy>-ta, lae'r"f.yI xl;v.YIw Gen 48:14 WTT⁸⁾
 에브라임 머리-에 놓다 그 오른손-을 이스라엘 펴다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놓았다.

b. Atêr"h\j' ~AyæB. 'Avaro xL;Ûglw Num 6:9

WTT

와 같은 특정한 구문에서 사용된다. 일본어에서도 “頭^{あたま}を刈^{かる}”처럼 같은 단어가 두부(頭部)와 모발을 둘 다 지시하며, 중국어에서도 “一輩子不剃頭”과 같이 ‘頭’가 두부(頭部)와 모발을 둘 다 지시한다. 물론, 언어에 따라서는 ‘to have one’s hair cut(영어)’이나 ‘sein Haar schneiden(독일어)’과 같이 ‘머리카락’을 직접 지칭하는 단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을 직접 지시하는 단어와의 경쟁이 약해지면 이와 같은 활성 영역의 변동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7) 지금까지 발견된 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700년 무렵 이집트 의사들이 제작한 파피루스에서 발견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이 사고를 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라를 만들 때 심장만을 몸 안에 남겨두고 뇌는 코를 통해서 모두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Estes 1989). 당시 이집트 문명은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므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정결케함의 날에 머리(털)을 깎다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c. $\sim yqia^v.M;h; rf;\ddot{a} \ddot{Y}varo\ddot{a}-ta, aF'\ddot{u}YIw\ddot{.}$ Gen

40:20 WTT

술 관원장 머리-를 들다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었다(죽였다).

‘머리’는 환유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유에 의해 의미의 사용 영역이 확장되기도 한다. ‘머리’의 은유적인 사용은 모종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촉발되고 확립된다.

- (3) a. 그는 우리 회사의 머리가 될 인물이 아니다. [기능적 유사성]
- b. 기차의 머리가 보였다. [형상적 유사성]
- c. 밥상머리, 산머리, 음표머리 [형상적 유사성]
- d. 자서전의 첫머리에 입장을 밝혔다. [형상-기능적 유사성]

(3)의 구문 [N의 머리], [N머리]에서 N는 ‘머리’의 유사성이 탐색되는 정신 공간, 혹은 영역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한다. (4)와 같이 히브리어에서도 유사성에 기초하여 ‘머리’의 사용 영역이 확장된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4)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어의 ‘vaor’도 유사성에 근거하여 용법이 확장되기 때문에, 한국어 대응 표현의 의미도 대부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4) a. $\sim yrI)h'h,* yve\ddot{a}r" Wa\beta r > nI$ Gen 8:5 WTT [형상적 유사성]
- 산들 머리 보이다

8) 전술한 바와 같이 히브리어는 원래 [왼쪽→오른쪽] 방향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서도 [왼쪽→오른쪽] 방향의 표기법을 준수하였다.

산머리(산봉우리)가 보였다.

b. tAcβWx-1K' varoiB. Wb±k.v' Isa 51:20 WTT [형

상적 유사성]

거리들-모든 머리에 높다

거리의 머리(모퉁이)에 누웠다.

c. `hJ'(Mih; varoi-1[; laeβr"f.yI

WxT;îv.YIw: Gen 47:31 WTT [형상적 유사성]

침대 머리-에서 이스라엘 경배하다

이스라엘이 침대의 머리에서 경배했다.

d. `varo)h' !heβKoh; !roih]a;-!B, Ezr 7:5 WTT [기

능적 유사성]

머리 제사장 아론-자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e. varoał. ~h,βyle[] At±Aa ~['ih'

Wmyfi'Y"w: Jdg 11:11 WTT [기능적 유사성]

머리로 그들에게 그를 백성 삼다

백성들이 그를 그들의 머리로 삼았다.

한국인에게 ‘산머리’나 ‘길머리’, ‘거리머리’와 같은 말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형상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vaor’의 원래 의미에 접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4d), (4e)의 ‘vaor’ 역시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기능적 유사성을 근거로 해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고대 이스라엘인과 현대 한국인이 신체의 형상과 기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고대 문서의 신체 어휘 사용은 그것의 정확한 이해에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한다. 위의 예들뿐만 아니라, 관용적 표현(idiomatic expression)으로 인식되는 ‘vaor’와 다른 동사의 결합(combination)은 한국어로 직역해도 그대로 뜻이 통하는 경우가 많다. (5)는

히브리어 성서에 나온 명사와 동사의 결합 표현이 한국어 성서에 그대로 직역된 예들이다.

(5) a. Av+aroB. hw"βhy> byviñhe lb'ên"
 t[;är" 1Sa 25:39 WTT

그 머리에 여호와 돌려주다 나발 악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1Sa 25:39 KRV

b. `~ØII'(v'Wry> tB;Ḑ h['ynlêhe varoâ

'^y"r<x)a 1sa 37:22 WTT

예루살렘 딸 혼들다 머리 너희를 향해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1sa 37:22 KRV

c. dbe^ak'÷ aF'îm;K. yvi_aro Wrâb.['

yt;nOwO[.]â yKiä Psa 38:5 WTT

무거운 짐 내 머리 넘치다 죄악이 -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Psa 38:4 KRV

d. `varo) ~yrliÿ" !Ke^a÷-l[; hT,_v.yI

%r<D<âB; lx;N:miâ Psa 110:7 WTT

머리 들다 그로-인해 마시다 길의 시내로부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Psa 110:7 KRV

(5a)에서 머리에 돌린다는 것은 결국 그 머리의 주인에게 돌린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공간적 인접성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환유에 속한다. (5b)에서 머리를 흔드는 행동은 상대방을 비웃거나 놀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 역시 동반되는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환유에 속한다. (5c)에서 머리는 죄책감을 인지하는 장소로 해석되는데, 이는 심리적인 압박이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5d)는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확립되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이런 문맥과 배경 지식을 고려해보면 머리를 드는 모습은 결국 힘이나 권위가 바람직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은 숙였던 머리를 드는 행동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경험이므로 환유를 통해 위와 같은 해석을 유도하는 것이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공동번역>, <표준새번역>은 모두 (5b)의 히브리어 원문을 ‘머리를 흔들다’로 직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서>만이 ‘비웃고 조롱하다’로 의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역이 가능한 이유는 고대 히브리인과 현대 한국인이 신체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이 의미 확장과 의미 해석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흔들다’는 환유에 의해 [비웃고 조롱하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의역은 원문의 정보 중 일부(머리를 흔드는 모습과 그것을 통해 연상되는 다른 것들)를 잃어버리게 된다.

3.2. 손 dy"

히브리어의 ‘dy'"는 ‘손’과 달리 팔 전체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환유에 의해 인접 영역이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Arz>’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머리카락’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머리’가 ‘머리카락’과 같은 영역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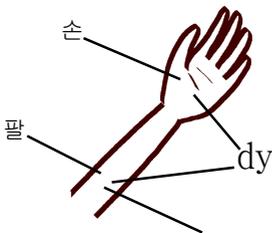


그림 5

<그림 5>

‘dy'"가 은유에 의해 용법이 확장되는 예들은 (6)에 제시되어 있다. [팔걸이], [바퀴의 축] 등은 형상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사용 영역이 확장된 예로 볼 수 있고, 이 중 [팔걸이]는 의자에서 팔을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유에 의해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열왕기상(1Kings 7:35)에서는 구조물의 받침을 ‘dy'"라고 했는데, 이처럼 은유적인 사용 영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6) a. `tAd)Y"ħ; lc,aeî ~ydIßm.[o tAyër"a] 1Ki

10:19 WTT

팔들 옆에 서다 사자들

팔(팔걸이) 곁에는 사자들이 서 있다.

b. ~yNIßp;Aa)h' tAdiÿwI 1Ki 7:32 WTT

바퀴들 축들

바퀴의 축들은...

이는 한국어 ‘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의 구문 [N의 손]에서 N은 손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손’의 의미 사용 영역은 기능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확장된다. (7a)의 남편과 (7b)의 친구, (7c)의 ‘당신’은 모두 일이나 작업을 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실제의 ‘손’과 기능적인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7)의 [N의 손]은 (3)의 [N의 머리], [N머리]에 비해 고착화가 덜 되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같은 용법의 확장 방식이다.

- (7) a. 아내의 눈과 손이 되어 주는 남편의 사랑 이야기
- b. 양팔 없는 친구의 손이 되어
- c. 당신은 나의 손이 되어 줄 수 있나요?

한편, ‘dy”는 다른 동사나 명사와의 결합(combination)을 통해 수많은 관용적 표현들을 양산해낸다. (8a)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아내를 보 내기로 하며 손을 내밀다’가 되지만, 한국어 성서에는 ‘손을 내밀다’가 아니라 ‘손을 잡아 맹세하다’로 되어 있다. 손을 잡는 것이 맹세하는 행위에 동반되던 관습이 이러한 관용적 의미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손을 내밀다’가 [맹

세하다]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다’를 번역에 넣어 보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8b)의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 손을 들다’가 되지만, ‘손을 들다’는 [항복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 성서에는 이 부분이 ‘손을 들어 맹세하다’로 풀이되어 옮겨져 있다. 이처럼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확장 의미, 혹은 연상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직역이 의미의 변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예는 ‘dy'''와 다른 동사와의 결합이 특별한 관용적 의미를 띄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직역이 어려운 경우는 문화나 관습의 차이로 인해 환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반 경험의 틀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 a. ~h, _yven> ayciäAhl. ~d''By''
 WnðT.YIw: Ezr 10:19 WTT
 보내다 손 아내 주다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Ezr 10:19 KRV
- b. hw''hy>-la, ydIÜy'' ytimo'yriH] Gen 14:22 WTT
 여호와-께 손 들다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Gen 14:22 KRV

하지만, ‘dy'''와 다른 동사와의 결합이 한국어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 (9a)와 (9b)는 직역을 했음에도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의미 결절이 없는 예들이다. 손을 대는 것은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동반되고, 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신하는 행위이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9b)를 “they escaped from the power of Aram”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KJV(King James Version)에서는 보다 직역에 가깝게 “they went out from under the hand of the Syrians”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KJV의 직역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굳이 NIV가 의역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손에서 벗어나다’, ‘손아귀에서 벗어나다’, ‘손에서 빠져나오다’ 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

문에, 원어 성서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9) a. r[;N:ëh;-la, ' ^d.y") xl;Ûv.Ti-la;
 rm,aYo©w: Gen 22:12 WTT

그 아이-에게 네 손 대다-말다 말하다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Gen 22:12 KRV

b. ~r"+a]-dy: tx;T;Ðmi Waêc.YEâw: 2Ki 13:5

WTT

아람-손 아래로부터 벗어나다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2Ki 13:5 KRV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0)과 같이 ‘손’의 의미를 [사람의 힘], [노력], [수완], [기술],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영향권)]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의 용법도 (8), (9)와 마찬가지로 동사와 조합된 구문이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10a)만 보더라도 [사람의 힘]이라는 의미가 서술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이 많이 가는 것’은 그 전체가 사람의 힘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 동반되는 경험적 참조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해당 뜻풀이 항목들은 관용구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

(9)와 같은 히브리어 표현들은 한국어로 직역해도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0)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손’ 관형구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성서에 이에 대한 모든 대응 표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어 성서는 텍스트 종류와 분량이 제한되어 있고, 현대 한국어는 더 풍부한 대응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 히브리어 성서를 직역하기 위한 조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10) a.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 b. 그는 사기꾼의 손에 놀아났다.
- c. 살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

이처럼 ‘dy'’와 다른 동사의 결합이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거나 환유에 의한 의미를 발생시키는 경우, 몇몇 특수한 예들은 불가피하게 의역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대다수의 예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의 틀 속에서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직역 표현이 가능하다.

3.3. 발 lg<r,

히브리어 성서에는 한국어의 ‘다리’에 대응하는 어휘가 없으며,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rey'’가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다리에서 넓적다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지시하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lg<r,’은 (11)과 같이 발이나 다리를 모두 지시한다.

- (11) a. wyl'g>r:-l[; tv,xoβn> tx;îc.miW 1Sa 17:6

WTT

그 다리-위에 늦 경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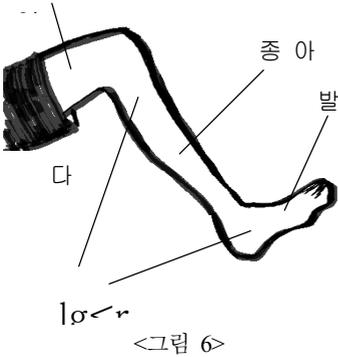
다리 위에는 늦경갑을 쳤고 1Sa 17:6 KRV

- b. ~k,_yleg>r: Wcβx]r:w Gen 18:4 WTT

당신들의 발 씻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Gen 18:4 KRV

신체 명사가 인접 부위까지 아울러 지시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환유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lg<r,’의 경우는 ‘다리’에 해당하는 어휘의 부재로 인해 그 용법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한국어의 ‘발’은 ‘손’과 ‘다리’와 ‘팔’ 같은



인접 영역에 대한 신체 어휘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영역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사야(Isaiah) 36 장 12절을 보면 'lg<r,'이 완곡어법으로 생식기 부위나 소변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인접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환유 현상에 속한다.

'lg<r,'의 사용 영역이 은유에 의해 확장되는 예들은 (12)에 제시되어 있다. (12a)는 'lg<r,'이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탁자의 네 발, 혹은 네 다리를 나타내는데 전이되어 사용되고 있다. (12b)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그 발(이스라엘의 발)이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기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히브리어의 'lg<r,'도 한국어의 '발'이나 '다리'와 마찬가지로 유사성이 발견되는 영역에 관습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었다.

(12) a. `wyl'(g>r: [B;îr>a;l. rv,Ða] taoêPeh;
[B;âr>a; l[;… Exo 25:26 WTT

다리들 네 개-에 relative 모퉁이 네 개의 위에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Exo 25:26 KRV

b. hm'êd"a]h'ä-!mi laeêr"f.yI lg<r<â
'dynlh'l. @ysi^aao al{ âw 2Ki 21:8 WTT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발 방황하다 더하다 않다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2Ki 21:8 KRV

한편, 'lg<r,'도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 구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13a)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 중 '발행하다'는 직역하면 '발을 옮기다'

가 되는데, 이 경우 한자식 표현보다 직역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미 전달도 더 쉽고 정확하게 해준다. (13b)의 ‘발이 빠르다’도 히브리어에서 직역된 것으로,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할 때 의미 차이가 없다.

- (13) a. `~d<q<)-ynEb. hc'r>a:ï %l,YEßw:
 wyl'_g>r: bqoß[]y: aF'îYIw: Gen 29:1 WTT
 동방사람들의 땅 가다 그 발걸음 야곱이 옮기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Gen 29:1 KRV
- b. `hd<)F'B; rv,îa] ~yIßb'C.h; dx:îa;K.
 wyl'êg>r:B. lq:â 'laehf'[]w 2Sa 2:18 WTT
 들 relative 들노루 하나 처럼 그 발로 빠르다 아사헬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2Sa 2:18 KRV

물론, 직역을 하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4)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다윗이 매복하고 있던 동굴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 장면이다.

- (14) wyl'_g>r:-ta, %seäh'l. lWaßv' aboiY"w:
 hr"ê['m. ~v'äw> '%r<"D<h;-l[1Sa 24:4 WTT
 그 발을 가리러 사울이 들어왔다 동굴 그곳에 그 길-위에
 (거기에)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1Sa 24:3 KRV

여기서 ‘wyl'_g>r:-ta, %seäh'l(발을 가리다)((’는 구약 히브리어에서 [쉬다], [용변을 보다] 등을 뜻하나, 우리말 ‘발을 가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의역했을 경우 원문의 두 가지 가능한 해석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만약 원어에 있는 중의성을 살리고자 한다면, 한글개역성서처럼 ‘발을 가리다’로 직역을 하는 대신 적절한 배경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치마처럼 긴 옷자락을 가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거나 변을 보면 긴 옷자락이 발을 덮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 남성들의 복식에서는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아서인지, ‘발을 가리다’가 [쉬다]나 [용변을 보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 한편, KJV에서는 이 부분을 “Saul went in to cover his feet”으로 번역하고 있고, NIV에서는 “Saul went in to relieve himself.”로 번역하고 있어 직역과 의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원어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부분이므로, KJV의 직역이 더 정확한 어감을 전달하게 된다.

3.4. 눈, 코, 입 !yI[; , @a(; , hP,

성서 히브리어의 ‘!yI[;’의 용법은 한국어의 ‘눈’과 거의 같지만, [샘 (fountain, spring)]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15)의 ‘~yIm:± tnOðy[’은 우리말로 ‘물의 눈’으로 직역되며, [샘]을 뜻한다.

(15) ~yIm:± tnOðy[e hrEúf.[, ~yTeäv.
 ~liyaeb.Wû Num 33:9 WTT
 물 샘(눈)들 열 돌 엘림에

엘림에는 샘물 열들이 있으므로 Num 33:9 KRV

은유에 의해 사용 영역이 확장된 이 용법은 한국어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원인을 고대 이스라엘의 환경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7>의 우측 사진은 (15)의 배경인 ‘엘림’과 가까운 ‘마라’ 지역의 샘인데, 좌측의 눈 그림과 비교해보면 형상적인 유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샘이란 지하수가 지상으로 흘러나오는 지점이므로, 체내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눈과 기능적인 유사성도 있다. 우리말에서는 ‘눈물샘’이라는 단어에서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적 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자연 환경의 차이가 은유적 용법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⁹⁾.

한편, 구약에서 ‘@a(;)’의 용례 중에서는 한국어의 ‘코’와 단어의 의미가 다른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a(;)’와 동사의 조합은 한국어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예들을 볼 수 있다. (16a)에서 ‘코가 뜨거워지다’의 히브리어 표현은 화가 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16b)에서 ‘코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화가 풀렸다는 것을 뜻한다.

9) 한 심사위원께서 ‘~yIm:± tnOðy[’을 [물의 눈]이 아닌 [물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와 관련하여 배도용(2002: 67)에서는 ‘눈’이 [중심]을 의미하는 예로 ‘태풍의 눈’을 들었다. 하지만, ‘태풍의 눈’에 나타난 사용 영역의 확장은 중심에 있다는 유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풍의 눈은 하나로 정중앙에 있지만, 인간의 눈은 두 개로 얼굴의 양 옆 상단에 위치한다. 더 큰 유사성은 주변과 대비되는 밝은 색조와 눈 모양과 비슷한 타원형태가 아닐까? 또, ‘태풍의 눈’에서 ‘눈’은 태풍을 전체로 보았을 때 그 일부를 가리킨다. 하지만, ‘~yIm:± tnOðy[’에서 ‘눈’은 샘의 중심이나 그 일부가 아닌 샘 전체를 지시하며, 형상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물이 솟아나온다는 기능적 유사성, 투명하고 맑다는 색상의 유사성 등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 (16) a. rm,aYo©w: lxe_r"B. bqoß[]y:
 @a;î-rx;YI)w: Gen 30:2 WTT
 말하다 라헬에게 야곱이 코-붙어지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Gen 30:2 KRV
- b. ^yxiøa' - @a; bWv' - d[; Gen 27:45 WTT
 너의 형-코 돌아오다-까지
 네 형의 분노가 풀리거든 Gen 27:45 KRV

한국어에서 분노의 발생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들은 ‘얼굴이 달아오르다’, ‘얼굴이 붉어지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등이 있는데(임지룡 1999), 히브리어에서는 ‘얼굴’ 대신 ‘코’의 색으로 분노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분노에 동반되는 신체적인 경험에서 발생한 환유에 속한다.

한국어의 ‘입’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hP,’에서는 은유에 의한 사용 영역의 확장이 두드러진다. 먼저, ‘입’은 주로 사람에게 쓰이지만 ‘hP,’는 나귀의 주둥이나 새의 부리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된다. 그리고 ‘hP,’는 우물이나 동굴, 가방 등의 ‘입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입구’의 한자어 ‘入口’에서도 ‘口’가 ‘입’을 나타낸다는 점은 흥미롭다.

(17)은 ‘hP,’의 은유에 의한 사용 영역이 한국어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예들이다. ‘hP,’는 (17a)에서 땅, 혹은 지역의 가장자리를 (17b)에서는 칼의 가장자리, 즉 칼날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은유적 용법이 입과의 어떤 유사성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17) a. $\sim t'(a'm.juB. hP, \bar{D}-la, hP, \hat{i}mi h'Wa \pm l.m$

Ezr 9:11 WTT

더러움으로 가-까지 가에서 채우다

이 가에서 저 가까이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Ezr 9:11 KRV

b. $br < x'' + -ypil. Wg\bar{a}r > h' An\bar{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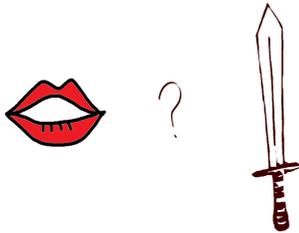
$\sim k, \bar{a}v. -ta, w > 'rAmx] -ta, w$ Gen 34:26 WTT

칼-날에 죽이다 그 아들 세겜-을 하물-을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Gen 34:26 KRV

이런 경우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의 직역은 원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입과 칼날의 유사성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컨대, 악어나 독수리의 입은 몸의 가장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예리하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유사성의 인식과 강조는 한국인들이 히브리어를 학습할 때 도움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설명 없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직역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림 8>

여 성서 히브리어와 현대 한국어의 신체 어휘를 설명하고, 히브리어 성서 번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 언어 단위의 용법이 환유와 은유라는 두 가지 메커니

즘에 의해 확장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은 동반되는 경험들이 장기 증강되어 원래의 의미가(意味價)가 변하는 현상인 반면, 은유에 의한 사용 영역의 확장은 원래의 의미가 처음과 다른 경험의 영역 속에서 복원됨으로써 실현된다. 전자가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에 의해 발생한다면, 후자는 다른 자극에 의해 기존에 구성되었던 시냅스의 구조가 복원되어야 발생할 수 있다.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과 은유에 의한 사용 영역의 확장은 모두 용법의 확장을 초래한다.

환유에 의해 발생한 ‘머리’, ‘손’, ‘발’, ‘눈’, ‘코’, ‘입’의 확장 의미들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항상성 동반 경험을 토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dy”가 [손]과 [팔]을, ‘lg<r,이 [발]과 [다리]를 둘 다 지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인접한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 두 언어 간 활성 영역의 불일치 현상으로 보인다.

은유에 의해 확장된 ‘머리’, ‘손’, ‘발’, ‘눈’, ‘코’, ‘입’의 용법들 중에는 대응하는 히브리어의 확장된 용법과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은유적 용법을 직역한 ‘산머리’, ‘침대 머리’, ‘머리 제사장’, ‘(가구의) 다리’ 등은 한국어로도 뜻이 통하거나 이해 가능하지만, 히브리어의 은유적 용법을 직역한 ‘거리의 머리(모퉁이)’, ‘바퀴의 손(바퀴의 축)’, ‘물의 눈(샘)’, ‘칼의 입(칼날)’ 등은 어색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언어 사용자가 경험하는 자연 환경이나 문화가 다른 경우에 은유가 사용되는 방식도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에 완전한 직역은 권장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은 동사와 조합하여 관용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용구는 명사 자체의 용법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명사가 포함된 전체 구문이 새로운 용법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단어 수준에서의 용법과 구분되어야 한다. 명사와 동사의 조합은 결국 동사가 머리(head)이기 때문에, ‘보다’, ‘잡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동사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의미를 확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ydlÛy” ytimo'yrIh(손을 들다)’는 맹세의 표시로 손을 드는 경험이 쌓이면서 (다시 말해, 맹세하는 것과 손을 드는 동반 경험이 누적되면서), [맹세하다]라는 새로운 확장 의미와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설명은 여기서 다룬 신체 어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x,l,’은 [곡식], [빵], [음식], ‘rfB’는 [피부], [가죽], [고기], [몸], [관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면 이 의미들이 어떤 연관성에 의해 묶여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설명 모형은 어떤 언어 단위이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많은 번역본들이 특별한 원칙 없이 직역과 의역을 임의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동반 경험 망 모형을 적용해 대조하면 직역이 효과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과학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범모(1999), “어휘 의미 정보의 구조와 표상-한국어 명사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 한국어 의미학회, 83-118.
- 배도용(2002a), “다의어 ‘눈’의 의미 확장 연구”, 담화와 인지 9(1), 담화인지언어학회, 51-76.
- 배도용(2002), “우리말 ‘머리’의 의미 확장 연구”, 국어학 40, 국어학회, 269-296.
-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지룡·정병철(2009), “의미망 분석과 다의성 판정의 원리”, 담화와 인지 16-3, 담화인지언어학회, 195-216.
- 정동수(2003), 개역성경과 킹제임스성경 비교 분석, 서울: 말씀과 만남.
- 정병철(2007), “동반 경험 기반의 환유 작용”, 담화와 인지 14-1, 담화인지언어학회, 173-194.
- 정병철(2009), 시물레이션 의미론에 기초한 동사의 의미망 연구, 한국문화사.
- 정병철(2010a), “시물레이션 모형에 의한 조사 ‘-로’의 통합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 의미학회, 215-243.
- 정병철(2010b), “시물레이션 모형에 의한 조사 ‘에’의 통합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55, 언어과학회, 275-304.
- 정병철(2011), “동반 경험 망 모형에 의한 부사 ‘바로’의 체계적 다의성 연구”,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183-207.

- 차준경(2009), 국어 명사의 다의 현상 연구, 서울: 제이앤씨.
- 허성갑(2009),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2판), 음성: 말씀의 집.
- Estes, J. W.(1989), *The Medical Skills of Ancient Egypt*, Canton: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 Hebb, D. O.(1949).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A neuro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Wiley.
- Kandel, E. R.(2006), *In Search of Memory: The Emergence of a New Science of Mind*. WW Norton & Company, New York.
- Kandel, E. R.(1979), *The Behavioral Biology of Aplysia: A Contribution to the Comparative Study of Opisthobranch Molluscs*, San Francisco: Freeman.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yler, A. & Evans, V.(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gg, R & Stone, L.(2010), *The Story of the Bible: The Fascinating History of Its Writing, Translation & Effect on Civilization*, Singapore: Thomas Nelson Publishers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제2합동 강의동 211호
702-701
전화 번호: 053-950-7279
전자 우편: chorri@daum.net

